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인디언의 달력

헤리온이라는 사람이 인디언들이 각 달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지를 모아 놓았습니다

- <1월>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 (아리카라 족), '나뭇가지가 눈송이에 똑똑 부러지는 달' (쥬니 족), '얼음 얼어 반짝이는 달' (테와 푸에블로 족)
- <2월> '물고기가 뛰노는 달' (위네바고 족), '홀로 걷는 달' (수우 족), '기러기가 돌아오는 달' (오마하 족), '삼나무에 꽃바람 부는 달' (테와 푸에블로 족),
- <3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달' (체로키 족), '암소가 송아지 낳는 달' (수우 족), '한결같은 것은 아무 것도 없는 달' (아라파호 족),
- <4월> '생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달' (블랙푸트 족), '머리 밑에 씨앗을 두고 자는 달' (체로키 족), '옥수수 심는 달' (위네바고 족),
- <5월> '들꽃이 시드는 달' (오사지 족), '말이 털갈이하는 달' (수우 족), '오래 전에 죽은 자를 생각하는 달' (아라파호 족),
- <6월> '옥수수 수염이 나는 달' (위네바고 족), '더위가 시작되는 달' (퐁카 족), '나뭇잎이 질어지는 달' (테와 푸에블로 족), '말없이 거미를 바라보게 되는 달' (체로키 족),
- <7월> '사슴이 뿔을 가는 달' (키오와 족), '천막 안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달' (유티 족), '들소가 울부짖는 달' (오마하 족),
- <8월> '옥수수가 은빛 물결을 이루는 달' (퐁카 족), '다른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달' (쇼니 족),
- <9월> '사슴이 땅을 파는 달' (오마하 족), '풀이 마르는 달(수우 족), 옥수수를 거두어들이는 달' (테와 푸에블로 족),
- <10월> '시냇물이 얼어붙는 달' (샤이엔 족), '추워서 견딜 수 없는 달' (키오와 족), '큰 바람의 달' (쥬니 족),
- <11월> '물이 나뭇잎으로 겹어지는 달' (크리크 족), '산책하기에 알맞은 달' (체로키 족), '강물이 어는 달' (히다차 족),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아라파호 족)
- <12월?> '다른 세상의 달' (체로키 족), '침묵하는 달' (크리크 족), '나뭇가지가 똑똑 부러지는 달' (수우 족), '늑대가 달리는 달' (샤이엔 족)

돈, 소유물, 음무게, 키 등 무엇이든지 숫자로 사람을 구분하며 사는 우리에게 인생은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자연과 삶의 과정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인디언들의 충고로 들려 졌습니다



◀그리운 날의 TV 외화▶ “호간의 영웅들”
 박진감 넘치는 전투장면이 있어야만 전쟁영화로 알고 있던 그때 ‘호간의 영웅들’은 특이하게 전쟁 코메디물이었습니다. 독일군 포로수용소에 갇힌 미군포로 ‘호간’ 대령과 동료 미군포로들이 독일군 수용소장과 독일군 간수를 속이며 벌이던 스파이 활동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언제나 사고를 치고도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던 어리버리하고 똥똥한 독일군 간수 ‘숄츠’ 상사는 차라리 미군포로와 친구처럼 여겨졌습니다. 손으로 채널 돌리며 케이스 문을 달고 잠자리에 들던 흑백TV, 구할수만 있다면 장만하여 지금의 TV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 내는 기도생활(마태 7:8)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8권 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1월 15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지선아 사랑해" 중에서



저는 짧아진 여덟 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 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는 엄지 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았고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컷바퀴 덕분에 컷바퀴라는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잠시지만 다리에서 피부를 많이 떼어내 절뚝절뚝 걸으면서는 다리가 불편한 이들에게 걷는다는 일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겹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 작은 고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백만분의 일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고,
 너무나 비천한 사람으로, 때로는 죄인으로, 얼굴도 이름도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 기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기도는
 조용히 문을 열고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인품따라 행하기▶
 예수의 삶을 따라 사는 법은
 점심시간 우두커니 혼자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기,
 의기소침한 친구와 함께 걸으며
 무엇을 도와줄지 생각하는 것이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1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2 (시 2편)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197장	다 같이
기도 Pray		정희자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창세기 6:5-22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생명의 양식」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믿음의 사람(2) 경건한 사람 노아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399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김종건 장로 가정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1월 예배위원◆

◆1월의 교회력◆

일자	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안내
1	정덕수	오지영		본당>노은숙 지찬영
8	합심기도	윤경례		
15	정희자	윤영전		<입구>김종건 장현중
22	최재학	윤주야		
29	현석호	이근평		

주 일	예배와 모임
25	성탄주일 송구영신예배(31):11:00
1	신년주일 신년축복새벽기도회주간
8	
22	수요예배개강(25)
29	이삭줍기봉헌

2006년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이사, 이민으로 교회를 찾는 분은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바른 판단이 섭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오후 2시	

- 금년 교회생활목표는 "기도"입니다(마7:8)
*지금보다 조금만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금요일의 새벽기도, 요종의 새벽은 운동삼아 일어나도 좋은 계절입니다. 한주간중 하루의 새벽쯤은 구별하여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히 제직들께서는 참석토록 노력바랍니다.
- 교우소식
<Tiffany가 백일을 맞았습니다> 오빠 Max의 시생을 받으며 지난 백일동안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백일 떡은 백 명에게 돌려야 한다는데 우리는 드시면서 축하하겠습니다.
<한국 이주> 김종건 장로. 지찬영 권사. 대연
*놀람, 아쉬움, 축하등 여러 감정이 교차된 소식이었습니다. 앞길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 입학> 김창식 집사(17일 출국)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소원이었던 신학공부를 우리교회가 속한 미주총회 소속 장로회신학대학(LA 소재)에서 시작합니다(3년과정). 지혜와 경건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3년 과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명예권사, 협동안수집사 임명
*당회의 결정으로 명예권사 한정옥, 협동안수집사 김수찬 두 분을 임명합니다.
-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출일> 1월 29일(다섯째 주일)
- 교우사업체, 직장 신년축복기도를 위한 심방.
<일정> 1월 13일부터- 31일 사이 <문의> 노은숙 권사
- 자원하여 봉사하실 교우를 기다립니다.
(1)주차안내 (2)결식자 급식봉사(2개월에 한번씩)
7. 수요예배는 18일(셋째 주 수요일)까지 이웃교회 참석 주간입니다

◀착한 시인▶ 비뚤어진 발자국

김연용

저 메마른 바다 위를 가르며
세상을 향해 내 발자국을
반듯하게 남기고 싶었다.
가끔 뒤를 돌아볼 때마다
다시금 비뚤어진 발자국을 보며 생각한다.
우리 삶과 참 많이도 닮았구나,
삶도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구나.

나이 드신 노인분들의 조심스러운 운전을 보며 나이가 들수록 조심스러워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로 인해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아직도 주저앉아 있을까? 두려움으로 되돌아 봅니다. 또한 앞으로 얼마나 주저 앉히고 주저 앉는 순간이 많을지 그 또한 두렵습니다.